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아프리카, 편견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상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이사)

최근까지 저에게 아프리카는 알고 싶지도, 알 필요도 없는, 관심 밖의 ‘검은 대륙’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 그 나라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가 중동이 아닌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다는 사실조차 불과 얼마 전해야 알게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돌아켜보면, 이 무지함의 뿌리는 오래 전부터의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한 생각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막연하게 아프리카를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이 사는 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측은히 여기고 돌봐야 할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고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약 30년전의 LA 흑인 폭동 사건의 충격과, 시카고 유학 시절 흑인들에게서 겪었던 불쾌하고 두려웠던 경험들도 제 편견을 더욱 굳히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성경적 지식과 개인적 경험이 뒤엉켜, 저는 오랫동안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사역을 하는 이재훈 선교사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동을 받아 그분을 후원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아내의 마음이 마침 의료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아프리카미래재단’과의 연결되었습니다. 김홍식 이사장과 첫 만남에서 “아프리카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아프리카를 모르면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웬지 모르게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사장 덕분에 재단이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평생 믿어온 성경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저주가 함의 후손 중 아프리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프리카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깃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살아가는 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시몬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역사를 보면 한국이 겪은 일제 식민 통치보다 두 배나 긴, 60, 70년에 걸친 오랜 식민 지배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의 드넓은 땅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분할하면서, 수백 년을 함께 살아온 같은 종족이 국경선 하나로 갈라지거나, 반대로 오랜 원수로 지내던 부족들이 한 나라 안에 억지로 묶이는 비극이 생겨났습니다. 식민지배가 끝난 후에도 이러한 인위적인 경계선은 끊임없는 종족 간 반목과 피비린내 나는 분쟁의 씨앗이 되었고, 그 결과 극심한 가난과 정치적 불안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과 정치적 불안정, 교육과 질병 등의 문제가 빨리 해결 되기를 기도합니다.



AFRICA FUTURE FOUNDATION NEWS

제 2차 한미AFF 리더십회의, 2027년 선교사대회 등 다뤄 2월 22일부터 이틀간 산호세에서, 두 선교사 보고 시간도 가져

제2차 한미 AFF 리더십 회의가 지난 2월 22일부터 이틀간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첫날 저녁 박석현 산호세지부 이사장이 개회예배를 인도하였고, 최재걸 이사장이 2025년 사역보고를 진행했다.

둘째날에는 김용훈 목사의 인도로 아침 경건회를 갖고 한국과 미국 본부의 2025년 사역보고를 진행했으며, 선교사 보고 시간에는 두 선교사가 참여하였는데, 니제르 정혜림 선교사가 니제르 사역을 보고하였고, DR콩고에서 피그미족을 대상으로 간호대학과 조산병원 등의 사역을 담당하는 최관신 선교사가 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특히 내전 상황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하는 바를 상세히 보고하고, 그동안 출산을 통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고했다.

계속되는 회무에서는 2026년 사업계획을 나누었고, 2027년 4월 12일부터 4일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약 11명의 선교사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창립 20주년 선교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선교사대회는 선교사들의 재충전과 네트워킹, 강의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미국AFF에서 김용훈, 나삼진 목사. 김홍식 이사장, 안상철 장로, 이경호 원장, 최종욱 장로를, 한국AFF에서 최재걸 이사장. 홍순철 대표. 이종섭 부

대표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선교사대회에 소요되는 재정은 미국본부와 각 지부에서 적절히 분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본부의 사무실 이전 문제를 보고하고, 이전과 효율성 방안을 포함해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한국과 미국 본부와 지부의 리더십들이 참석하여 사역의 상호 이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 2025년 2월 아틀란타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본부에서 최재걸 한국 AFF이사장과 황현룡 부장이 참석했으며, 나삼진 미국본부 사무총장, 동부 본부 김용훈 이사장, 이경호 아틀란타지부장, 산호세지부 박석현 이사장, 최정욱 산호세지부 대표, 신진옥 총무 등이 참가했다.

뉴스레터 일부 개편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 본부는 뉴스레터를 일부 개편하였다. 전체 12면을 유지 하되, 8-9면에 배정되었던 뉴스 지면을 2-3면으로 옮기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강화해 보다 친숙한 뉴스레터가 되도록 힘을 예정이다. 독자들도 다양한 의견과 소식을 보내주시길 기대한다. 아프리카미래재단 뉴스레터는 2019년 겨울호로 창간된 이후 연 4회 아프리카 선교지 소식과 아프리카미래재단 사역 소식이 꾸준히 나뉘어지고 있다.



마다 이재훈 선교사, 나삼진 사무총장 KGBC '행복한 동행' 출연

마다가스카르 이재훈 선교사와 박재연 선교사가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 2월 12일 KGBC를 방문해 행복한 동행에 출연, 선교 소식을 나누었다. 그는 선교사로 파송된 이야기며, 마다가스카르 선교지에서 있었던 선교 이야기, 마다가스카스 한국대사관과 협력하여 기사혼장을 받고 대통령을 면담하던 중에 농촌지역 전문 의료인력 양성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나누었다.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가 KGBC '행복한 동행'에 초 청되어 아프리카미래재단과 사역을 소개 했다.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진행자이천 목사의 인도로 대담하였는데, 그는 아프리카미래재단의 출범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잠비아 제라보건대학, 마다가스카르 의료 선교, DR콩고 피그미족 사역, 니제르 그레이스 아카데미와 임마누엘 아카데미 소식 등을 소개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소개할 기회를 갖도록 했다.



DR 콩고 피그미 사역 소식

최관신 선교사 선교사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여전히 보내주신 관심과 기도 덕분에 아프리카 콩고의 부냐키리 지역과 르완다의 루씨지 지역에서의 피그미 사역이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었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피그미 사역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으로 동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역 현황 및 성과 보고

1) 복음사역

치템보 성경번역: 치템보 성경 신약전서 완간 (500부 콩고로 발송)

2) 의료사역(Bunyakiri Yesu Hospital)

의료장비 발송(초음파 기계 3대, 각종 산부인과 기자재, 수술 도구, 신생아 용품 등)

의약품 발송: 한국 작은손과 전북대학교 대학병원과의 협조로 전문 의약품 발송 병원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미래재단 미주 지역(에틀란타 지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2,650/월)

3) BYH(부냐키리 예수병원; 2026.1 월~2 월)

외래진료: 547건(주로 초음파 검사와 임상 병리검사 관련)으로 위염, 말라리아, 장염, 성병, 영양실조 등

산부인과 출산: 1월(25명), 2월(15명)

재정 보고(\$): 수입(9,304.2) - 지출(9,061.7) = 잔액(242.6)

지원 요청: 검사실 장비(suction device 외), 들것(stretcher), 의사 층원(여성), 병원 울타리 설치, 의약품 지원

향후 지원: 안과와 치과 추가 설치 필요

4) BMCC(부냐키리 복음기독교대학) 운영

제 1 회 졸업생 배출(36명)

2026년도 수업 진행(122명 등록)



2. 2026년도 사역계획

1) 복음사역

교회 건축(\$6,000~\$11,000/무교회 지역에 교회 건축), 치템보 성경 번역 (\$15,000/모세오경과 시편 번역 완료 후 발간)

2) 의료사역

BYH(부냐키리 예수병원)에 의료 장비 및 의약품 지원, 지역 보건소 건립(\$30,000/무의촌에 병원 건립)

3) 학교사역:

BMCC(부냐키리 복음기독교대학) 관련: 장학금 사업(\$300/1인/1년), 교수 요원 양성(\$1,200/1인/1년), 초등학교 양호실 프로젝트(\$5,000)

3. 2026년도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 1) 콩고 내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부탁
- 2) 치템보 성경번역의 완성을 위한 기도 부탁
- 3) 의료사역을 위한 의약품, 의료장비, 의료기술 연수 등을 위하여
- 4) BMCC 운영을 위한 장학금 후원의 손길을 위하여



DR 콩고 피그미 사역 소식

최관신 선교사 선교사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여전히 보내주신 관심과 기도 덕분에 아프리카 콩고의 부냐키리 지역과 르완다의 루씨지 지역에서의 피그미 사역이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었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피그미 사역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으로 동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 년도 주요 사역 현황 및 성과 보고

1) 복음사역

치렘보 성경번역: 치렘보 성경 신약전서 완간 (500부 콩고로 발송)



2) 의료사역(Bunyakiri Yesu Hospital)

의료장비 발송(초음파 기계 3 대, 각종 산부인과 기자재, 수술 도구, 신생아 용품 등)

의약품 발송: 한국 작은손과 전북대학교 대학병원과의 협조로 전문 의약품 발송 병원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미래재단 미주 지역(애틀란타 지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2,650/월)

3) BYH(부냐키리 예수병원; 2026.1 월~2 월)

외래진료: 547 건(주로 초음파 검사와 임상 병리검사 관련)으로 위염, 말라리아, 장염, 성병, 영양실조 등

산부인과 출산: 1 월(25명), 2 월(15명)

재정 보고(\$): 수입(9,304.2) - 지출(9,061.7) = 잔액(242.6)

지원 요청: 검사실 장비(suction device 외), 들것(stretcher), 의사 충원(여성), 병원 울타리 설치, 의약품 지원

향후 지원: 안과와 치과 추가 설치 필요

4) BMCC(부냐키리 복음기독교대학) 운영

제 1 회 졸업생 배출(36명)

2026 년도 수업 진행(122 명 등록)

2. 2026 년도 사역계획

1) 복음사역

교회 건축(\$6,000~\$11,000/무교회 지역에 교회 건축), 치렘보 성경 번역 (\$15,000/모세오경과 시편 번역 완료 후 발간)

2) 의료사역

BYH(부냐키리 예수병원)에 의료 장비 및 의약품 지원, 지역 보건소 건립(\$30,000/무의촌에 병원 건립)

3) 학교사역:

BMCC(부냐키리 복음기독교대학) 관련: 장학금 사업(\$300/1 인/1 년), 교수 요원 양성(\$1,200/1 인/1 년), 초등학교 양호실 프로젝트(\$5,000)

3. 2026 년도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 1) 콩고 내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부탁
- 2) 치렘보 성경번역의 완성을 위한 기도 부탁
- 3) 의료사역을 위한 의약품, 의료장비, 의료기술 연수 등을 위하여
- 4) BMCC 운영을 위한 장학금 후원의 손길을 위하여



잠비아 선교 소식

허일봉 • 전미령 선교사

잠비아를 사랑하시는 동역자님들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잠비아에서 기도 편지를 보낸 지가
벌써 꽤 되었습니다. 1993년 4월에 첫
편지를 보냈지요.

잠비아에 온 후 3년만에 그루터기
선교회 잠비아 지부를 1996년 2월 6일
로 정부에 등록하여 올해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
(예베소서 3장 20절) 감사드리며, 치소모 병원과 제라 대학 모든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맛있는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1. 제라 국제 보건대학

1) 1월 17일 토요일 오후 루사카에서 약 400km 떨어진 Maamba
국립병원으로 실습 나가 있던 임상학과 3학년생인 에비스톤
카통고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정신을 잃어 곧 병원에 옮겨졌
으나 사망했다는 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런 비보
에 가족들과 우리 모두는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제라 대학
학생주임과 임상 의학과 학과장이 함께 마암바로 내려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카통고의 어머니는, 함께 기숙생활 했던 친구들과 제라 대학을



원망하며 장례식 때 대학 측에서는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해, 일단 유족의
뜻을 존중하며 대학 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촛불예배 를 드렸고, 일주일 후에
싱고고 교수가 부모님을 찾아가 조의
금을 전하고 카통고가 미리 낸 학비 등
을 돌려드리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
다. 아들을 잃은 부모님을 주님께서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는 삶과 죽음에
대해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2) 학생들이 사용할 대형버스가 필요해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
니다.

3)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중에 빈혈이 있는 아이들이 가
끔 기절을 하곤 해 치소모 병원에 와서 응급치료를 받곤 합니다.
필요한 약을 먹이지만 아이들에게 영양식을 정기적으로 공급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여건이 안되어 식사를 개인
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대충 끼니를 해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히 학생 식당이 마련되어 이들이 마음껏 식사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 남학생 기숙사는, 가장 오래 걸리는 안팎의 미장이 끝나고
천정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공사도 함께 하는 중입니

다. 다음 7월 학기 때는 남
학생들도 기숙사에서 자유
롭게 거주하게 되리라 믿
으며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
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두 번째 여학생 기숙사 도
거의 완공이 된 상태로 다음
학기 초에는 학생들의 입주





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강외동 건축도 비를 피하여 조금씩 진행하여 벽돌 외벽쌓기가 70% 끝났습니다.

기숙사 벽돌 담이 좀 낮아 그곳으로 도둑들이 들어와 학생들 빨래를 훔쳐가곤 해 벽돌 3장 높이를 더 올려 쌓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비도 많이 오고 늦게 까지 오면서 건축 진행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5) 오랫동안 잠비아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 자상하신 엄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아드님이 제라 학생 중 한 아이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를 이어 잠비아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후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에 이 일을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2. 치소모 병원

1) 제라 대학 2025년 간호학과 졸업생인 '위니 실루왈레', '쉐퍼드 초토', '드롤리나 무프와프위'가 파트타임 간호사로 새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2) 지난 기도편지에 기도 부탁드렸던 3명의 직원들 중, 2명은 건강한 아들과 딸을 순산했고 1명은 태아 위치가 거꾸로 되어 내일 제왕절개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라 국제 성경 교회

3월 22일 주일 아침, 두 번째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제라 대학 남학생 1명과 첫 번째 세례식 때에 세례받은 제라 대학 여학생의 남편이 함께 받아서 모두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싱고고 목사님은 사도행전 8장 35~38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설교하시며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교회에서의 봉사를 강조하셨습니다.

남편을 교회에 인도하고 세례까지 받게 한 여학생이 너무 대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 그 밖의 일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장 15절

1)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던 한국 교민 한 분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여 병세가 악화되면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더니 급기야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란전쟁이 시작되면 서 한국의 가족도 하늘 길이 막혀, 못 오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그분의 장례식 때 상주 역할을 하며 다른 한국분과 함께 장례를 도왔습니다. 혼자 남게 된 미망인을 위로하며 앞으로의 일도 상의 하면서 천국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2) 3월 20일은 전선교사 생일이었는데 아침에는 제라 대학 학생들이 사무실에 와서 생일 축하노래를 불러주더니 오후엔 선물을 마련하고 파티를 열어 주었습니다. 마음을 써주는 직원들과 학생들이 참 고맙습니다. 그 중엔 태어날 때 허선교사가 새벽에 차로 그 엄마를 분만실에 데려다 준 학생도 있었는데 "할머니, 오래 사세요!" 라는 축하문자를 전해주어 세월이 빠르구나 느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서 선교지에선 환율에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 모습에 스스로 픽 웃으며 '오직 예수님만 붙들자'로 마음을 바로 잡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주님의 은혜는 넘침을 압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동역자님께 충만하시기를 구하며 늘 잠비아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바브웨 선교 소식

강동원 • 전진경 선교사



사랑하는 미주지역 아프리카 미래재단 후원자분들께,
짐바브웨에서 인사 올립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코이카 민관협력 력사업 ‘하라레 소아재활역량 강화 사업’이 하라레 수도뿐 아니라 전국 7개 지방병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 그저 소아뇌성마비 환아들의 엄마들이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환아들의 호전이 안 보여서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2022년부터는 2개 지방병원이 추가 되고, 2025년부터는 5개 지방병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짐바브웨가 총 10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거의 전국에 소아재활사업이 확장된 것입니다.

코이카 민관협력사업이 80%는 한국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하지만 20%는 사업을 수행하는 NGO에서 담당을 해야 하기에 언제나 자부담 모금이 저희 사역 진행에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년 동안 1억 8백만원 모금이 완료되었고, 그 중 10%를 캘리포니아 산호세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짐바브웨 소아재활센터를 직접 방문 하셔서 축복기도해 주신 동부 열린문교회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자부담을 위한 7,100만원 모금이 필요하고, 내년에도 7,500만원 모금이 필요한데,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예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600명이 넘는 소아뇌성마비 환아들이 집중치

료를 받았고, 이 중 30% 이상의 환 아들이 자기 발달 단계에서 3단계 이상의 호전을 보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소아뇌성마비 환아 가족들의 입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아뇌성마비는 하나님의 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환아들을 밤낮없이 돌보는 엄마들도 기도하면서 하루 2시간 이상 가정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재활병원에서 최고역량의 뛰어난 치료사님들을 파견해 주시고, 남아공 최고 의대를 졸업한 한인 의사 선생님이 통역을 완벽하게 해주어서 영어로 짐바브웨 치료사들을 해마다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성령님께서 한국팀과 짐바브웨팀을 묶어 주셔서 연수 기간 내내 사랑으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 일은 그저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열심히 팀을 먹인 일 밖에 없는데, 짐바브웨 치료사들이 지식이 넓어지고 기술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환자치료에 진심인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병폐가 자본이 돌지 않고 임금 수준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동기가 부족한데, 코이카 사업이 이 bottle neck을 제거하고 형통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짐바브웨 핵심 치료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서울재활병원에서 연수도 받고 치료도 받는 한국방문 연수도 있었고, 이 분들이 한국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 하고 돌아와 저희 소아재활사업에 대한 입소문은 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에





짐바브웨 코이카 아동재활사업 3차사업을 위해 각지방 치료사 교육 및 재활환아 치료를 위한 지방 모니터링 방문사역 (2026년 3월~11월; 사진 좌로부터 마싱고, 무타레, 치노이 지방병원)

집착하던 치료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제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올라가므로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7년째가 되면서 어린 아였던 환아들이 학동기에 접어들고, 축적된 환자수가 많아져서 센터 내에서 환자치료를 다 할 수 없어서 기존 환자들이 오후에 센터 방문을 하거나 동네 근처의 아웃리치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받게 되는데, 그동안 교육받았던 치료사들과 학생 수가 179명에 육박해서 이에 대한 치료인력도 충분히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차원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아웃리치 재활프로그램은 다른 NGO에서 돕고 있는데, 저희 교육사업에 의해 크게 도움을 받았기에 서로 고마워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 산호세교회에서 방문해 주셨을 때 함께 기도 하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의지할 곳이 하나님 밖에 없었기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고,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선교하는 일이 19세기 20세기와 사뭇 달라서 놀라고 어리둥절하지만,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게 됩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Dimension! 놀라운 사랑의 범위를 생각할 때 절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

습니다.

앞으로의 기도 제목은 운동 기능이 좋아진 소아뇌성마비 환아들이 학교에서 잘 공부할 수 있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생활인이 되도록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NGO와 잘 연결되길 원합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의료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쓰면서 관련된 NGO와 잘 협력하게 되길 원합니다. 짐바브웨 보건복지부 내 재활국도 이 사업을 잘 이어받아서 10개 지방병원이 모두 동일한 집중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2027년 코이카 사업 종료 이후의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주 지역의 한인 1.5세 2세 영어에 능통하고 의사가 된 분들이 짐바브웨 의학교육에 참여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워싱턴DC 열린문장로교회에서 방문해 주셨을 때 함께 돔보샤바 돌산을 오르면서 큰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주 지역에 놀라운 인재들을 많이 준비해 두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짐바브웨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길을 개척해 주신 고 박상은 원장님을 추모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처해진 환경 속에서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 편지를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기도로 물질로 동참해 주셔서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모두 건승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남아공 선교 소식

김재수 • 김순희 선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기도와 재정으로 남아공 선교에 동참해주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희망봉 신학교 소식

지난 3월 8일에는 2026년도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학사 학위 과정에 15명이 등록하였고 박사과정에 3명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남아공이 아닌 다른 세 나라에서 이곳으로 와서 여기 학생들과 함께 기숙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2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지 못하는 지역인 케이프리콘 성경학교(희망봉 신학교의 분교)에서도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봉 신학교정부 등록

희망봉 신학교는 지금까지 인가 난 신학교의 분교로 운영되다가 이제 독자적으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아공 교육부에 대학과정이 아니라 전문대학 과정으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과정은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고 좀 재정이 적게 들어가는 전문 대학 과정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등록에 필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재정이 모아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등록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졸업생들이 시험에 합격 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목사의 자질 문제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목사 국가 자격증제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는데 교회들의 반대로 아직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실시되리라 생각하고 목회자 들은 이를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문교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줄여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문교부에 등록을 하면 등록된 학교가 독자적으로 학비를 어느 정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캐슈스는 박사과정 논문 제안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왜 박사학위가 필요한가 하면 현지인 학위를 받게 되면 그가 하는 사역은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보다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저는 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현지인 들 가운데 두 사람이 현재 남아공 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이 두 분 교수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이 미치는 영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를 현장에서 보고 있는 저는 목사 양성과 동시에 재능과 열심과 소명에 확신하고 있는 자들을 박사학위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저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캐슈스는 짐바브웨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소토 나라에서도 현재 교수요원 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위 취득 후에는 자신의 교단 학교 의 교수로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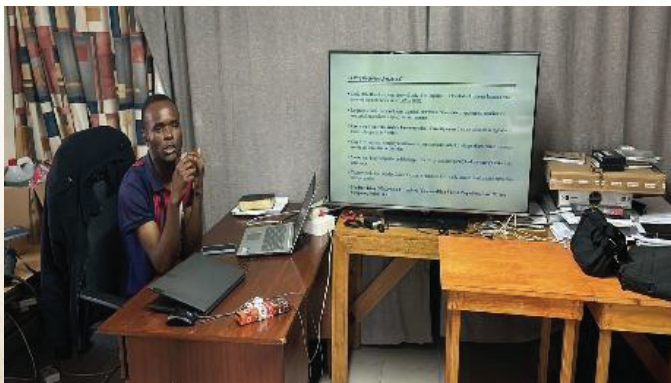
프란iskus 방과후 교실과 기타 소식

3월부터는 신학생들의 실습의 일환으로 방과후 교실에서 김순희 선교사와 같이 초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서 세 반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김재수 선교사는 희망봉 신학교 이외에도 다른 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연초부터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세미나. 지난해에 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 교회연구소 소장인 신민범 교수께서 오셔서 한 교단의 전도부를 대상으로 개혁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세미나 요청이 있어서

이번 7월에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교회개혁 세미나는 이번에 3번째가 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개혁에 대한 열정과 실제로 교회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희망봉 신학교의 긴급한 기도제목

1. 김재수 김순희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지속적 재정의 후원과 사역을 위해서
2. 희망봉 신학교의 좀 더 큰 강의실이 마련되어, 효과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3.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성경과 신학으로 목회를 위해서 준비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사회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선교사 파송과 관리의 복잡한 문제들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사무총장)

필자가 선교를 잘 알지 못할 때 선교사들이 6년마다 안식년을 얻어 한 해를 쉼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목회자에 비해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지로 나가면 목숨을 걸고 선교해야 하는데, 안식년을 그렇게 자주, 또 길게 갖는다는 것은 사치와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요 교단 선교부에서는 4년마다 안식년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선교사는 본토 친척 아버의 집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롭게 사역하는 이들이다. 지금은 항공 사정이 좋아 아프리카 먼 거리도 하루면 도착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먼 선교지로 이동하는 데만 해도 배를 타고 두 달을 갔던 때도 있었다. 선교사가 본국을 방문하고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교회와 후원자들을 만나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선교사들 중에는 규모있는 교단 선교부나 선교단체의 파송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주된 방식이지만, 더러 노회나 교회의 파송으로 선교하는 이들도 있다. 아무런 준비없이 스스로 선교지로 나가는 경우도 흔히 만난다. 이런 경우는 선교사들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특히 선교사를 돌보는 것이 잘 안 되어 적지 않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선교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식하고, 사역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급한 일에 매달리다보면 안식이라는 중요한 일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선교는 쉽게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선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선교에 있어서 '가는 선교사'가 우선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인 교회도 역시 중요하다. 가는 선교사가 선교에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해도, 보내는 선교사가 선교사를 위한 후원을

게을리한다면 가는 선교 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가는 선교사들을 돕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선교 본부의 역할도 역시 그렇다. 선교본부의 역할 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역사가 깊어지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 멤버 케어의 필요성이다. 선교사 멤버 케어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문제가 무엇 인지 살피고, 선교사로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선교에 계속 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체제를 말한다. 선교사들에게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현지 적응 문제, 자녀들이 성장하면 또 다른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등장한다. 선교사들이 때로 긴급한 문제로 선교 지를 떠나야 할 때도 있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선교사들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 하면 선교사의 선교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 지는 것이다.

많은 선교 후원자들은 선교사를 위한 헌금을 하면서 내가 드린 헌금이 그대로 다 선교지에 전달 되기를 바라고, 또 선교단체들이 행정비를 공제하고 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한다. 그런데 선교 본부 운영에는 후원자들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규모있는 한 선교단체의 선교비 관리 규정을 보면 좀 알 수 있다. 선교비는 기본선교비로 선교사의 생활비, 언어훈련비, 주택비, 자녀교육비, 활동비, 휴양비, 사역비 등이 필요하다. 파송비는 초기 경비로 이사비용, 현지 정착비. 항공료 등의 경비가 필요하며, 기타 경비로 행정비, 비자 경비, 은퇴 적립금, 비상금, 경조비 등이 필요하다. 선교사가 현지에서 20-30년 동안 선교지에서 오직 사역만 집중하고 그의 노후나 은퇴 후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

선교사 케어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 (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250)

714-732-1484 (미국) +82) 31-342-9182 (한국)

✉ aff@africaff.org 🌐 www.africaffusa.org

🗣️ 📱 아프리카미래재단

📷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Zelle를 보내실 때

- 이메일 : africaffusa@gmail.com

- Africa Future Foundation

☐ 송금하실 때 (아틀란타지부 전용)

- 은행 : Chase Bank

- 계좌번호 : 462352621

- Routing 번호 : 322271627

선한 청지기들 2026. 1. 1 - 3. 31 / 재정 보고

헌금자 명단

김동천 김명숙 김준화 김은식 김은정 김응원 김인용 김홍식/김정미 나삼진 백형순 송은석/이원희 석소정/김진영 이애숙
이종남 송은석/이원희 송영애 신영애 양해중 이경호 이승숙 이애숙 이종남 이홍철 장국현 장마리아 한창훈 황길남/황로미
Thomas Bae, Kani Han, William Chang Han, Andrew Kim, Eun S. Kim, Nate CJ Kim, Ester Lee, Pae Lee, Michelle Lim,
Woo / Min Sun Lim, Moses Park, Simon Paek, Michael / Christina Yang, John Yahng, Roger Smith, Victor Rhee
아틀란타한인간호사회,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새벽이슬교회, 신약국(신사라), 신일장로교회 여선교회, 예수소망교회,
오렌지카운티살롬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JJ물리치료(정정훈), America Online Foundation,
Exalting Christ Church of Atlanta, Messenger of God, Hope Family Medicine with Express Care,
Livingstone Home Health, Purpose Driven Mobile Physician

* 혹시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AFF사무총장 (나삼진 목사, 714-732-14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으로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기 결산

수입부

1월	17,460
2월	5,050
3월	5,550
수입계	28,060

지출부

사업비 / 한국 AFF	12,685
우간다(김세현)	10,000
마다가스카르(이제훈)	3,000
니제르(정혜림)	3,000
모로코(강스테반)	2,000
남아공(김경환)	1,000
소계	31,685
행정비/사무비	208.65

회보 인쇄비	3,423.19
우편료 / 수수료	84.27
인건비	2,743.50
AFF USA리더십	1,539.21
세금 / CPA 수수료	691.00
소계	8,689.82
지출합계	40,374.83

수입부

아틀란타 지부

1월	4,600
2월	5,300
3월	5,300
합계	364,200

지출부

아틀란타 지부

DR공고 예수병원	4,720
합계	4,720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

